가을 문화강좌 '풍성'

지성과 감성 '수확의 계절'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處暑)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 문화센터나 문화원, 박물관 등에서는 가을맞이 문화강좌 준비에 한창이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과 같은 심도 있는 강좌를 비롯해 단청에 표현된 갖가지 문양들의 숨은 뜻을 알아보는 문화예술강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종교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강좌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평소 관심 가졌던 분야를 이번 기회에 접해 보고, 높아지는 가을하늘처럼 정신의 키를 올려보자.

◆성천문화재단 부설 생활문화아카데미는 '우리문화밝힘강좌'와 '미래지향 문화강좌'를 개설했다. 우리문화밝힘강좌에서는 전통회화 감상을 위한 기초이론에서부터, 도자감상을 위한 기초이론, 현대회화 감상을 위한 기초이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다. 미래지향문화강좌에서는 종교와 예술, 지식사회와 자기관리,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사람 · 종교 · 과학, 21세기 환경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02)786-1754

◆한옥문화원은 제5기 '한옥으로의 초대'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의 무늬'강좌가 새로 개설된다. 한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통무늬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이 강좌는 단청을 중심으로 불구, 불화, 범종 등에 나타난 다양한 모양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한옥문화원 원장이자 목수 신영훈씨가 강의 한다. 또 민가와 사원 궁궐 등 전통 한옥을 찾아 그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카메라에 담는 방법을 배우는 '사진가 김대벽의 건축사진 실기강좌'와 한옥의 정서와 공간적 조형미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를 한옥처럼'도 진행된다.(02)562-0303

◆영남대박물관도 지역민과 학생들을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새겨놓은 암각화의 비밀을 풀어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울주 암각화의 비밀'을 비롯해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발해와 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발해를 찾아서' '사라진 가야의 역사들'등의 강좌를 연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라사람들의 생활을 재조명해보는 '화랑세기를 통해보는 신라의 역사', 일연스님의 생애를 재조명해 보는 '스님 일연', '추사 김정희와 제주도', '옛그림의 이해와 감상'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053)810-3627

◆전남대박물관의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주제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문화유산'이다. 9월7일부터 12월7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강좌는 지리산과 분단문학, 지리산 자락의 돌조각, 지리산의 사찰과 탑, 지리산과 섬진강의 역사, 호남의 불교회화와 지리산, 섬진강과 나의 시, 화엄사와 화엄경, 지리산의 선승과 부도, 지리산과 판소리 등 지리산과 섬진강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시인 김용택, 국악인 전인삼, 작가 임환모 등이 강사로 나선다.(062)530-3584.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문화강좌에서 지적 갈증도 달래고 정신의 키도 올려보자.



◇박현씨가 불교TV에서 불교수행론을 강의하고 있다.

"수행 궁금증 푸세요"

불교TV '불교수행론' … 박현 씨 진행

절을 할 때 몸이 저리거나 마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불교TV에서 불교수행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현씨(한국학연구소장)는 "잠시 몸이 힘들더라도 멈추지 말고 근육이 풀릴때까지 계속 절을 하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불교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매주 월요일 낮 12시25분 불교 TV에 채널을 고정시켜 보자. 27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박현 소장의 '바로보는 동양학 제2부, 불교수행론'을 만날 수 있다.

이 프로에서는 재가불자들이 참선이나 기도와 같은 수행을 할 때 눈물이 나거나 환상이 보이는 등 까닭모를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비롯해 재가불자들의 수행시 주의사항과 구체적인 실천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불교 수행론' 프로그램은 △불교 수행의 의의와 요체 △계율 수행 △기도 수행 △염불수행 △참선수행 △진언수행 △간경수행 등의 주제별로 진행된다. 직접 방청을 원하는 시청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까지 불교TV 스튜디오로 오면 녹화방송에 참가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시회로의 초대



故 김근원 '산' 사진전

지난해 타계한 우리나라 산(山)사진의 대부 故 김근원씨(1922~2000)의 사진전 '그 장엄한 아름다움'이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가회동 갤러리 서미에서 열린다.

산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나라 명산들의 특징을 카메라에 담아왔던 김씨의 유작 14점이 선 보인다. 광각렌즈나 필터의 거의 쓰지 않은 정직한 사진들 속에서 산과 함께 호흡했던 그의 작가 정신을 느낄 수 있다.(02)3675-8232

류승애 산수화전

수묵화에 있어서 자연과 그 자연 속의 안긴 산사는 오랜 옛날부터 많은 화인들의 소재가 되어왔다.

한국화가 류승애씨 또한 그 자연과 산사를 소재로 한 신작들을 '산수화전'에서 선보인다. 29일~9월 4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류씨는 '햇살 고운날' '동백붉은 향일암' '도의 길' '전등사' 등 우리 주변 산사의 풍경을 담은 수묵담채화 30여점을 전시한다.(02)736-4804





춤과 조각의 만남

조각과 춤이라는 상이한 장르가 만나, 각각의 고유성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예술로써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춤추는 조각전'이 9월 2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각과 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퓨전'으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02)720-1020



부산미술대전 대상작 '연(緣)'

제27회 부산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각가 조민길(30 · 사진 · 부산 사하구 당리동)씨의 작품 '연(緣)'. 화강석과 청동, 철을 재료로 한 이 작품은 나와 연결된 인연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 인연은 또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150×200

제주도에 녹차박물관 개관

제주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설록차박물관이 9월 1일 개관한다.

설록차박물관은 (주)태평양이 작년 1월 설록차 재배단지인 안덕면 서광리 1234의 3 일대부지 8천 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1천564평 규모로 건립한 것이다. 총 26억여원이 투자된 이 박물관에는 차의 역사와 제조공정을 보여주는 역사관을 비롯해 전시관, 영사관, 녹차시음장,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늦여름 열린 창으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온다. 일어나 내다보니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다. 더 어린 꼬마들은 그늘진 모래밭에서 모래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그들의 순일(純一)한 마음이 전해 온다.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된 완벽한 삼매!

그 순수한 세계, 유년기의 행복이 언제 깨졌을까? 주관과 객관의 분열, 자아와 세계의 균열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타의에 의해 낯선 세상에 던져진 듯한 느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끊어졌다는 자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 균열의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존재론적 불안(不安)으로 발전되고,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종교와 예술과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도(求道)란 '되돌아가는 것'이며, 헤어진 님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대도시의 고단한 삶에 쫓겨 그 그리움을 잃어버렸으며, 마음은 무디어져 이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목석(木石)이 되어버렸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하는 구절을 대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그리워하는 '님' 조차 없이 태연히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다. 시집 서문에서 만해는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고 했는데, 과연 나의 님은 누구란 말인가? 정말 간절한 염원 하나 없이 살고 있다면, 이 무덤덤한 생은 얼마나 삭막한 것인가?

한용운 '님의 침묵'(3)

구도란 되돌아 가는것 나의 님은 누구?

선(禪)의 세계에서 선지식이 늘 강조하는 것은 '의정(의심덩어리)을 놓지 않는 것'이다. 화두를 타파하는 데에는 따져보고(思量), 판단하는(卜度)게 무용지물이며 오로지 의심이 생명(疑團獨路)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을 한용운은 <님의 침묵>을 통하여, '간절한 그리움을 잃지 않아야(直指人心) 마침내 님을 보게 된다(見性成佛)'고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 의정이란 곧 그리움이다. 님을 만나는 데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왜 그리워지는지' 따지고 판단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고 싶어 죽겠다는 데야, 결국 만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게다.

그리운 대상 하나 없이 사는 삶은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화두를 들고 졸고 앉은 거나 진배없다. 그러고 보니 '그리움'과 '그림'과 '글'은 어원적으로 모두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술도 그리움의 산물이며, 깨달음도 그리움의 열매이다. 마음을 안절부절못하게 하는 이 그리움(의심)은 언제 사라지는가? 님(性)을 볼(見) 때 없어진다. 나만의 '님'을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다. 의심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랑'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動靜一如)' 뿐인 상사병 걸린 사람이 문득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으로 '운명의 指針'이 바뀌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은' 한용운은 행복한 사내였다.

■문학평론가